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지난 6월 29일 96세의 홍석희(1926~2021) 여사께서 운명하였다. 비보를 듣고도 전염병 때문에 조문할 수 없어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했다. 홍 여사는 내 손위 동서의 숙모여서 동서 집에 들를 때 만나 빌 경우가 많아 그녀의 일생은 대강 알고 있었다. 1926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과에 다니던 양동성(1923~1951:고창고보 교장 양태승 차자)에게 시집간 후 24세에 외아들 양홍렬을 낳았다. 다음 해인 1951년 27세에 남편이 병사하자 영아를 키워 성장시키며 70년이 넘도록 수절(守節)하다 남편 곁에 묻혔다. 나는 그분을 뵈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부인이 저런 모진 삶을 아무런 탈없이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었다.

노순아(盧順阿:1896~1982) 부인은 함평에서 태어나 19세에 나주의 이용헌에게 시집간 뒤 중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8년 동안 시봉하다 부인의 나이 겨우 27세에 끝내 운명하셨다. 혈육 한 사람 남기지 않은 혈혈 청상과부로 87세까지 사셨으니 대단한 열부였다. 부인은 나의 장인이른의 숙모인데 분간하지도 않고 평생을 조카 집에서 함께 살았으니, 나는 처가에 갈 때마다 그녀의 삶을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 애들 3남매까지 그녀가 들

우리 시대의 열부(烈婦) 세 사람

보아 주셨으니 한식구처럼 잘 알던 처지였다. 다행스럽게 우리 장인 형제분들이 그분의 가극한 정신을 잊지 말자고 부인의 일생을 기록한 비를 마을 앞에 세워 놓았으니, 모두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열녀비다.

마지막 부인은 나의 집안 할머니다. 광산김씨 김죽산(金竹山:1872~1951)할머니는 나의 증조부의 5촌 숙모이고 우리 조부의 재종조모여서 내가 10세까지 그분의 삶을 지켜보았다. 집안에 행사만 있으면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행사도 치렀기 때문에 자주 뵈던 분이였다. 우리는 그분의 덕호를 죽산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여자의 이름이 없던 시절이어서 호적에도 김죽산으로 실려 있다. 8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때는 극노인이었다.

죽산할머니는 26세에 남편을 잃었는데 유아가 하나 있었으나 크고 보니 병어리였다. 하지만 그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시댁 살림을 이끌고 사셨다. 참으로 대단히 지조 높은 여인이었다. 할머니의 손자들이 마을 앞에 '광산김씨 열부비'를 세워 모두의 귀감이 되게 하였으니 그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 우리 집안 족보에도 "지조가 정숙하여 여사의 품모가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고 짝매이 아기가 있다는 이유로 따라 죽지 못하고 고아를 키우며 온전하게 절개를 지켰으니 군과 도로부터 열부의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다. 만인이 칭송하는 열부였음이 분명하다.

최근 홍씨부인의 타계로, 요즘 세상에 그런 열부가 우리 곁에 있으며 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부인과 노씨부인까지 생각하면서 열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시인 조지훈은 '지조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보통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으로서의 인간 본능고를 이성과 의지로써 초극(超克)한 그 정신을 높이 보기 때문이다. 정조와 지조의 고귀성이 거기에 있다." 청상과부로 지내며 인고의 삶으로 절개를 지킨 여인들을 고귀하게 여겨 한없는 칭송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암 박지원은 '열녀 함양박씨전'에서 본능고를 이기며 수절했던 여인의 아픔을 눈물겹게 기술했다. "과부란 고독한 처지에 놓여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다. 혈기가 때로 왕성해지면 어찌 혹 과부라고 해서 감정이 없을 수 있겠느냐?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제 그림자처럼 울로하며 홀로 지내는 밤은 지새기도 어렵다. 또 처마 끝에 빗물이 똑똑 떨어지거나 창에 비친 달빛이 허얇게 흘러들며, 잎새 하나가 뚝 떨어져 뜰에 날리거나 외기러기가 하늘에서 울며 날아가고, 벌리서 닭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린 종년은 세상모르고 코를 골면, 이런 저런 근심으로 잠 못 이루니 이 고초를 누구에게 호소하리요." 달고 달은 염전 하나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버티었던 과부의 서러움을 이렇게 기술한 것이었다. 과부의 수절이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약용은 '열부론'에서 "남편이 천수를 누리고 안방에서 조용히 운명하였는데도 아내가 따라 죽는다. 이는 자살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자살은 천하에 제일 흉측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대신 남편을 따라 죽으면 열부가 아니고 팔까지 살아서 인고의 아픔을 견디며 집안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열부라고 했다. 요즘 세상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들일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목격했던 세 분 열부들의 회고담을 남긴다. 어찌 고귀한 지조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꿈꾸는 2040



차승세  
위안연구원 이사  
광주 노무현 시민학교장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되었고 국민의힘도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적임자임을 주장한다. 후보들의 지지율은 작은 이슈 하나, 말실수 하나에도 오르락내리락한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가 대표를 뽑는 큰 축제인 까닭에 각 지지자들의 환호와 대응으로 소란이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왜 시끄러워요? 정치인 아저씨들은 왜 맨날 싸워요?" 세월이 지나도 반복해 듣는 우리 아이들의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고 답해 주고 싶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각각의 소리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담아 내야 하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리 만무하다. 아이들에게 친구와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도 이에 한 몫을 한다.

정치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내면 되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

모두를 위한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

렇게 된다면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 것일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반대 없이 일치할 수 있을까. 저항이 없는 권력은 독재와 다르지 않다. 각 진영의 시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 저항의 뜻을 펼친다.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날씨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오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반대 기조를 극복하고자 연정을 구상했다. 지금까지 정권을 교체해도 여소야대면 힘들었고, 여대야소 패권을 쥐어도 오래가지 않거나 혹은 내부 분열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그런 현실 속에 지지층의 바람과 자신의 소신을 올곧게 구현하지도 못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겪는 일이었으며 그도 그러했다. 노무현의 연정은 이런 고민 속에 구상됐다. 대통령이 반대 층의 정책 기조를 알아서 반영하는 것보다 여야 양측이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연정의 핵심이었다.

연정으로 정치적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노동자가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 이분법적 잣대로 바라본다면 경영자와 노동자는 대립 관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한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된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대통합의 정치로 국가 발전을 이룬 사례는 적지 않다.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은 "본 열된 집은 지속될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 후 대선 예비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반대 진영의 정당 출신의 원을 장관으로 등용했다. 아시아의 용이 된 싱가포르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코로나19라는 환난이 초래한 대전환의 물결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게 '생존'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져 주었다. 생존을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낡은 진영 논리는 밝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는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치는 필수며, 때로는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분화된 한국 정치의 탈출구를 권력을 나누는 연정에서 찾으려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대립과 갈등은 이제 멈춰야 한다. 연정에 대한 진지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견제와 대립을 통한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통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모두를 위한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광주, 친환경 녹색도시 서둘러야 한다

북극과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지방정부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의 도시, 그린스마트 도시, 녹색도시' 등을 자처하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공통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바로 '나무 심기'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주요 해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2022년까지 3000만, 부산 2022년까지 1000만, 인천 2027년까지 3000만, 울산은 2028년까지 1000만 그루가 목표치다. 대전은 2050년까지 1000개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도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한다.

특히 대구는 199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으로 현재 4400만 그루를 보유한 도시가 됐으며, 녹피율은 2019년 기준 광역시 평균인 57%를 크게 상회하는 63% 수준이다.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해 온 만큼 결과도 좋다. 대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4년 연속 특·광역시 1위,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도 5년 연속 정부 합동 평가 1위다.

우리 광주 역시 2027년까지 3000만 그루 심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추진 실적은 작년까지 3년이 되도록 505만 그루에 그쳐, 산술적으로 올해 포함해 7년 동안 2495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올 2월에도 광주시는 '시

원하고 푸른 광주' 조성을 위해 3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답보 상태에서 우려했을 수 없다. 도시 공원, 시설 녹지, 가로 공간, 유휴 부지 등 공공 부지에 1700만 그루를 심는다 치면, 민간 부문에 1300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구의 날' 51주년인 올해 환경부는 '바로 지금, 나무부터!'라는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지구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탄소중립'은 정부뿐 아니라 시민 각자가 한 명의 지구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실천해 가야 할 과제다. 나무는 미세먼지 등을 흡착·흡수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며, 증산 작용에 의한 에어컨 효과로 열을 흡수해 기온을 최대 3~7℃ 낮춘다고 한다. 뜨거운 도심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일이다.

나무 심기는 수직 정원, 도시 농원, 실내 조경,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정과 도심에 나무 심기와 푸른 숲 조성이 절실하다. 오죽하면 '숲세권'이란 말까지 등장했겠는가.

광주 도심 곳곳에 나무 심기를 서두르자. 이왕이면 광주의 명소에 나무를 심고 꽃밭을 가꾸어 지역의 웰빙 먹거리와 연계하자. 관광객들도 더불어 마련된다. 시민들도 '바로 지금, 나무부터!'라는 마음으로 나무 심기에 적극 동참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시원한 녹색도시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社說

이재명 질주 민주 경선 호남 표심 주목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 지사가 어제 강원 지역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각각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누적 '과반 1위'를 이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지역 경선에서 내리 4연승을 기록한 뒤 1차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그제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경선에서도 51.12%를 득표해 1위에 올랐던 이 지사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워크 발표 결과 총 75만1007명의 선거인단 중 누적투표수 55만8800표 가운데 28만5852표(51.41%)를 득표하며 과반 1위를 기록했다. 1차 슈퍼워크는 지역 대의원·관리당원 중심으로 지금까지 치러진 대선·총남, 세종·충북, 대구·경북, 강원 지역 순회 경선 투표 결과와 지난 8~12일 투표가 실시된 64만1922명 규모의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해 발표한 것이다.

결국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17만2790표 득표율 31.08%로 2위를 기록, 역전의 발판을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는 추석 뒤로 예정된 호남 순회 경선(25~26일)과 10월3일 발표되는 2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이다. 만약 이 지사가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대세론을 유지한다면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바로 거머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전 대표도 탄탄한 조직력을 토대로 텃밭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비장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일각에선 조심스럽긴 하지만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과연 앞으로 이 지사의 질주가 계속될 것인지 이 전 대표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호남 표심이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줄줄 새는 코로나 고용지원금 관리 강화를

코로나19 사태 피해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각종 고용 관련 정책자금의 출몰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업체 관계자 14명과 브로커 두 명 등 모두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자금 등 3억 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틈을 타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단기 근무자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유령 직원을 고용해 한 달가량 4대 보험료를 내고 휴직 처리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구속된 브로커 두 명은 이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부정수금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선

비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자 의원인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26억여 원(사업장 576개)으로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 93억여 원을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자금 등 3억 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금을 '논돈 돈'으로 여기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파멸직한 범죄 행위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면 세면 필요한 곳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변혁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북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한 열망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꾸러진 전남대 국문과 시 창작 동아리 '비나리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삶으로의 예술 또는 운동으로서의 사명감'을 견지했다. 또한 구호보다는 삶에 뿌리를 둔 구체성에서 문예운동의 활로를 찾았으며 시 창작 외에도 시평, 역사 탐방, 농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사건적 의미의 비나리페는 '우리 전통의 공동체 문화의 민요양식'을 뜻한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호남학과 정명중 교수의 저서 '전남대 비나리페의 문예운동'은 당시 비나리페의 역사와 활동 및 의미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책이다. 정 교수는 "로컬 담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지역 문학 연구 관점에서조차 이들의 활동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집필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나리페 기억이 점차 잊히는 데다 주류 또는 정통 문학사 시각에서도 이들의 활동이 재평가되지 못하는 현실을

환기하고 싶었다." 비나리페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공동창작을 시도, 문예 창작 관점에서도 사뭇 이색적인 족적을 남겼다. 특히 집단지성이 발휘된 작품 '들불야학'은 오월시 동인 집에 실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모두 6편의 공동 창작시, 5권의 시집, 1권의 시선집은 남도를 넘어 한국 문학사에 신선한 파문을 던졌다. 동아리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는 저마다 문학적 성취를 일군 시인으로 성장했다. 김경운·임동학·이형균·윤정현·송광룡 등 그들이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현실에 대한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 탓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2학기 개강을 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적막에 빠져 있다. 40여년 전 비나리페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대의 질곡에 맞서' 성과를 이뤄 냈던 것처럼, 코로나 세대 또한 언젠가는 오늘의 시대를 의미 있는 결실로 엮어 내리라 기대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해경  
남부대학교 초빙교수

지구가 뜨겁다.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1℃ 오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01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기후 재앙'으로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이미 지구온난화 피해는 심각하다. 이상 기온으로 한파와 폭설이 반복되고, 폭염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빙하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 내륙은 사막화되고 있다. 해마다 살인적인 폭염은 사람 목숨마저 앗아 간다. '2050년 거주 불가능 지구'는 결코 비현실적인 말이 아니다.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을 시간으로 표현한 기후 시계를 보면 현재 1.5℃ 상승까지 7년이 채 남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 EU 등 세계 주요국은 앞다퉈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나섰다. 미국도 파리기후변화협약